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도서 대출 목록 분석 — 다 대출 작가의 책을 중심으로

오정례 국립안동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제1저자)

권이은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 교수(교신저자)

* 이 논문은 2024 한국독서학회·한국작문학회 연합 학술대회(2024.9.28.)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도서 대출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I. 서론

정부에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을 2022년 3월에 시행하였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교육의 일환으로 ‘읽기의 기초’ 영역을 신설하여 한글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 문식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노은희·정혜승·민병곤·서수현·서영진·최숙기 외, 2022; 이경화, 2022; 천경록, 2021; 최숙기, 2023). 초등학교 1학년은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독서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윤준채, 2020; 이순영·김해인·박신애, 2020; 천경록, 2020; Bruner, Elias, Stein, & Schaefer, 2004)로 한글을 읽는 읽기 능력의 발달과 함께 책을 읽는 독자로서의 발달도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학교 도서관은 초등학생의 문식 활동과 깊은 상관이 있는 장소로 독자로서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공간이다. 초등학생의 학교 밖 문식 활동에 대해 연구한 정혜승·김정자·정현선·손원숙·김종윤·민병곤(2016)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의 장서 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용 빈도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도서관의 장

서 수는 학생들의 문식 태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인 상관을, 문식 활동의 어려움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김혜정(2019)은 책맹의 원인이 책 자체를 싫어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외부의 문식성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도서관 환경과 초등학교의 독해력 관련 연구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학교 도서관이라는 문식 공간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년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의 목록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책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다 대출한 도서 목록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대출한 도서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다 대출한 도서의 특성을 밝히고 성별에 따라 대출한 도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식 활동과 관련된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독서 지도를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도서 대출

초등학생들이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와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초등학생의 도서 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도서 선택 요인을 다양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정리한 이지영·박소희(2011)의 연구는 아동의 책 선택에 다양한 요소가 개입됨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도서 선택 요인은 크게 텍스트 요인, 독자 내적 요인, 맥락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텍스트 요인으로는 책의 두께, 밀도와 같은 ‘난도 관련 물리적 특성’, 표지, 삽화와 같은 ‘시각 관련 물리적 특성’, 시리즈물, 작가 등 ‘상위 정보’, 화제/주제, 장르 등 ‘자체 내용’으로

나누었다. 독자 내적 요인으로는 ‘배경지식’, ‘자아 효능감’ 등, 맥락 요인으로는 읽기 목적과 같은 ‘상황 맥락’, 독서 공동체 영향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초등학생 중에서 1학년의 도서 선택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Fresch(1995), Donovan, Smolkin, & Lomax(2000), Mohr(2006), 오정례(2024) 등이 있다. Fresch(1995)는 1학년 학생들이 친숙한 책을 다시 읽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쉬운 책과 어려운 책을 넘나들며 읽는 모습을 포착하였다. Donovan et al.(2000)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 도서관에서 책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읽기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첫째, (평소에 교사가 읽어줘서) 친숙하지만 어려운 책, 둘째, 관심이 있는 주제의 어려운 책, 셋째, 텍스트를 변형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내재적 동기가 발현되는 어려운 책, 넷째, 실험 기간 이전에 보았던 책을 제외하고 우연히 고른 어려운 책이었다.

1학년 학생들의 그림책 선택 선호를 확인한 Mohr(2006)은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정보성 책, 특히 동물 책을 선호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인 아동이 서사적 텍스트를 선호한다는 연구와 모순되는 결과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책 선택을 읽기 능력과 관련지어 살펴본 오정례(2024)는 읽기 능력에 따라 학생이 선택하는 책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학교 도서관에서 3권의 책을 고르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주로 그림이 있는 책을 선택하며, 읽기 수준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두 우의 동화를 좋아하며 동물 관련 화제 책을 선호하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반면 장르 선택은 읽기 수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초등학생의 책 선택은 매우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고, 특히 1학년은 다른 요인보다 공통적으로 화제에 대한 친숙함, 화제에 대한 호기심 등 책에서 다루는 화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초등학교 저학년의 도서 선택 관련 연구들은 연구 설계 과정에서 학생들이 고를 책의 수나 종류를 제한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한 경우가 많았고, 국외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학교도서관은 수많은 책이 있는 곳이기에 실험 상황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책 선택에 있어 국가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이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의 양상에 대한 선행 연구만을 분류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학교도서관 다 대출 목록을 분석하여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별 아동의 동화 선호 경향을 분석한 신현재·이정순(2013)은 초등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많고, 삶에서 긍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호함을 밝혔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동화의 범주와 관련하여 옛이야기, 환상적 기법으로 전달하는 비허구 이야기, 그림동화를 선호하며, 동화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어구형으로 된 제목, 학교생활과 관련된 제목을 선호하고, 동물이 중심이 되는 동화, 선악이 대립되는 동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도서 대출 실태 및 독서 경향을 살펴본 남미·권동택(2019)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의 8-13세 아동의 최다 대출도서 200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은 독서 편향성을 보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고 연도에 따른 경향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초등학생은 성별에 관계없이 유명 시리즈물 중심의 독서 편향성을 보였으며, 이는 해가 지날수록 심화되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도서의 표현 형태와 주제에서 선택의 다양성이 두드러졌고 판타지 동화와 같은 특정 장르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출 연도에 따라 독서의 경향성이 변화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리물과 같은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대출하거나 선택하여 보는 책들의 특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 연구들이 2010년대의 정보

를 사용하여 팬데믹 이후 변화된 학생들의 특성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 시의성이 낮다는 문제에 주목하였다. 서혁(2023)은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독서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텍스트의 확장 현상이 심화·가속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떠한 책을 선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 시점인 2022년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대출한 책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선호하는 책의 경향성을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1년간 학교 도서관 대출 목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경상북도 구미시의 A공립 초등학교 4개 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B공립 초등학교 3개 반, 서울시 서초구 C공립 초등학교 2개 반의 학교 도서관 대출 목록을 사서 교사를 통해 전달 받았다. 전달 받은 도서 대출 목록을 토대로 149명(남자 80명, 여자 69명)의 1년간 대출 목록 11,533권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 목록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대출한 도서의 특성을 밝혀야 했기 때문에 다 대출 도서를 선정하였다.

다 대출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책 제목’이 아닌 ‘작가 이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특성상 시리즈물을 읽는 경향이 매우 큰데, ‘책 제목’으로 다 대출 목록을 선정할 경우 하나의 시리즈에 속해

있는 책이 다 대출 목록의 상위에 오르는 문제가 있다.¹⁾ 이러한 경우에는 도서관 대출 목록의 특성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가 이름’을 기준으로 다 대출 작가를 50위까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 대출 작가 50위까지의 책은 총 5,844권이다.

2. 자료 분석 방법

최종적으로 5,844권의 책을 대상으로 <표 1>과 같이 1차부터 5차까지 코딩을 하였다. 코딩의 기준은 공동 연구자와 함께 선행 연구(권이은, 2015; 권혁준, 2009; 한명숙, 2016; 현은자·김세희, 2005)를 참고하여 논의 후 설정하였으며 코딩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의논하며 코딩을 진행하였다.

1차로 책의 목적에 따라 책의 장르를 분류하였다. 정보책은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실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며 과학, 역사, 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문학책은 감정, 경험, 상상력 등을 표현하고 독자에게 감동이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설, 시, 수필, 극 등 다양한 장르가 있다. 정보책 중에는 서사 형식의 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형식의 정보책들도 책의 목적 자체는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정보 장르로 분류하였다. 기타 영역에는 수수께끼 책, 숨은 그림 찾기 책, 퀴즈 책, 그림 그리기책 등이 포함되었다.

2차로 시리즈 여부를 분류하였다. 시리즈 책은 동일한 주제나 캐릭터를 중심으로 여러 권이 연속적으로 출판된 책들을 말한다. 동일한 저자나 출판사에 의해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일관된 형식이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독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

1) 책 제목으로 다 대출 도서를 선정하는 경우 1위부터 20위까지 ‘추리 천재 영당이 탐정 시리즈’가 10권, ‘흔한 남매 시리즈’가 8권, ‘비밀요원 래너드 시리즈’가 1권, 『(책임감이 자라는) 고양이 탐구 생활』 1권으로 나타났다.

〈표 1〉 도서 분류 기준

1차: 책의 장르	2차: 시리즈 여부	3차: 책의 표현 형태	4차: 책의 하위 유형	5차: 책의 내용
1) 정보	1) 시리즈 2) 비시리즈	만화책	분류 안함	
		그림책	과정 강조	귀납적 분석
			특정 주제	
		글책	과정 강조	귀납적 분석
			특정 주제	
2) 문학	1) 시리즈 2) 비시리즈	만화책	분류 안함	
		그림책	사실적	사실 동화
				역사 동화
				에세이
			낮은 환상성	환상적 설화
				우의 동화
			높은 환상성	SF 판타지
				완전한 판타지
	1) 시리즈 2) 비시리즈	글책	사실적	사실 동화
				역사 동화
				에세이
			낮은 환상성	환상적 설화
				우의 동화
			높은 환상성	SF 판타지
				완전한 판타지
3) 기타	1) 시리즈 2) 비시리즈	만화책	분류 안함	
		그림책		
		글책		

3차로 책의 표현 형태를 ‘만화책, 그림책, 글책’으로 분류하였다. 만화책은 전형적인 만화책과 줄글과 만화가 함께 있는 책이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의미를 구성하는 그림책과 삽화가 그려진 동화책, 삽화가 그려진 정보책을 포함한다. 글책은 만화나 그림이 없는 페이지가 많은 책으로 줄글이 주가 되는 책이다.

4차로 책의 하위 유형은 정보책의 경우 과정 강조의 정보책과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제시하는 정보책으로 분류하였다. 과정 강조 정보책은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처럼 정보의 제시 형태가 과정을 강조하는 경우이며,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책은 ‘악어에 대한 모든 것’처럼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 전체의 정보를 고르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문학책의 경우 선행 연구(권혁준, 2009)를 바탕으로 환상성을 기준으로 사실적인 문학책, 낮은 환상성의 문학책, 높은 환상성의 문학책으로 분류하였다. 권혁준(2009: 30)은 판타지를 ‘우리의 친숙한 세계에서 발견될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등장하는 이야기, 혹은 초자연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정의하고, 옛이야기나 우화를 판타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권혁준(2009)은 판타지 동화를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환상성이다. 환상성은 ‘상상작용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거나 재구성하는 지점에서 독자가 느끼는 놀라움’이다. ‘환상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유사 판타지와 본격 판타지를 구분한 결과 ‘우화나 의인동화’의 경우 표면적으로 볼 때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 배면을 보면 현실세계를 비유적 기법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며, ‘신화, 전설, 민담’ 같은 설화는 환상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지만 본격적인 판타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본격 판타지가 아닌 유사 판타지로 분류를 하였다.

두 번째로는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의 존재 방식에 따른 분류로 교통

형 판타지(현실계와 비현실계가 같이 존재하는 판타지), 1차 세계형 판타지(현실계 속에 비현실적 사건이 삽입되는 판타지), 2차 세계형 판타지(비현실계만 존재하는 판타지)로 나누고, 이러한 판타지를 본격 판타지로 분류하였다.

5차로 구체적인 책의 내용을 분류하였다. 정보책의 경우는 책의 제목과 내용을 통해 귀납적으로 코딩하였다. 문학책의 경우 권혁준(2009)의 기준과 책의 내용을 통해 사실적 문학은 ‘사실 동화, 역사 동화, 에세이’로 분류하였다. ‘사실 동화’는 현실의 시간을 배경으로 사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안녕 자두야’ 시리즈, 고대영 작가의 ‘지원이와 병판이’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역사 동화’는 과거의 시간을 배경으로 사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책 중 ‘역사 동화’에 해당하는 책은 없었다. ‘에세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제로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반려견과의 일상을 담은 절미언니가 쓴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인절미예요』라는 포토 에세이가 대표적이다.

낮은 환상성의 문학은 ‘환상적인 설화, 우의 동화’로 분류하였다. 환상적인 설화는 과거를 배경으로 하여 순수하게 사실적인 역사동화에 비해 어느 정도 환상성을 유발하는 ‘신화·전설·민담’이다. ‘우의 동화’는 의인화된 동·식물, 사물이 나오는 동화인데, 지혜, 가족의 사랑과 우정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으며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의 동화에서 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해도 동물이나 사물이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점에서 환상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에 낮은 환상성의 문학으로 분류하였다.

높은 환상성의 문학은 ‘SF 판타지와 완전한 판타지’로 분류하였다. ‘SF 판타지’는 마법과 미래의 과학적 상상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1학년 학생들이 다 대출한 책 중 『무엇이든 해결단』 허팝 연구소, 4: 우주괴물 찾기 대소동』을 SF 판타지로 분류하였다. 이 책은 주인공 허팝과 친구들이 우주로 나가 다양한 행성과 환경을 탐험하며 우주에 있는 우주 괴물을 찾는 이야기로 이 과정에서 우주선이나 우주 기구 같은 과학적 장비들이 등장하며 우주

괴물이라는 상상이 어우러진 내용이다.

‘완전한 판타지’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 여행 판타지,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교통형 판타지, 현실적인 배경에서 비현실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이야기’가 있다. 1학년 학생들이 대출한 책 중에서 과학적인 상상과 관련이 없으면서 환상성의 요소가 높은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시리즈나 ‘100층짜리 집’ 시리즈(『100층짜리 집』, 『바다 100층짜리 집』, 『숲속 100층짜리 집』, 『지하 100층짜리 집』, 『하늘 100층짜리 집』), 백희나 작가의 작품(『구름빵』, 『달 샤베트』, 『알사탕』)을 완전한 판타지로 분류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다 대출 작가 및 책의 순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이 대출한 작가의 1위부터 50위의 순위와 그 작가들의 작품은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다 대출 작가와 작품

순위	작가	대표 작품	대출 횟수
1	트롤	영당이 탐정 시리즈	798
2	흔한남매 원작	흔한남매 시리즈	527
3	한날 외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시리즈	322
4	조영선 외	Why 시리즈	314
5	박설연	비밀요원 레너드 시리즈	307
6	히로시마 레이코	전천당 시리즈	216
7	강진희 외	Who 시리즈	205

8	이빈 원작	자두 시리즈	194
9	은하수미디어 편집부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퀴즈 백과 시리즈	179
10	GIMC DPS	구름빵 애니메이션 그림책 시리즈	175
11	김미영 외	카카오 프렌즈 시리즈	152
12	라곰씨	허팝 연구소 시리즈	139
13	박시연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	131
14	맥스 브룩스 외	마인크래프트 시리즈	122
15	김태환 외	(딩동~) 개 도감, 고양이 도감 시리즈	116
16	고대영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지하철을 타고서, 집안 치우기, 싸워도 돼요?, 거짓말	103
17	이와이도시오	100층 짜리 집 시리즈: 숲속 100층짜리 집, 바다 100층짜리 집, 하늘 100층짜리 집	103
18	이원표	종이접기, 페이퍼 블레이드	102
19	서현	호라이, 호라이호라이, 간질간질	102
20	미야니시 타츠야	신기한 우산 가게, 또 또 찬성	95
21	백희나	구름빵, 알사탕, 이상한 엄마	93
22	R.L 스타인	구스범스 시리즈	92
23	요시타케 신스케	이게 정말 나일까?, 이게 정말 뭘까?	90
24	유설화	슈퍼 거북, 슈퍼 토끼	86
25	구도 노리코	우당탕탕 아옹이, 뼈악뼈악 첫 캠핑	83
26	나카야 미와	까만 크레파스, 도토리 마을의 빵집	77
27	김지안	봄봄 딸기, 여름 낚시, 알밤 소풍, 코코 스키	63
28	조재호	요리스타 청 시리즈	58
29	안비루 아스코	마녀 찻집의 행복 메뉴, 허브 마녀의 신기한 레시피	47
30	에그박사 원작	에그박사 시리즈	46
31	김영진	아빠의 이상한 퇴근길, 엄마의 이상한 출근길	45
32	윤정주	꽁꽁 시리즈	44
33	안녕달	수박 수영장, 당근 유치원	41

34	고돌덕	(책임감이 자라는) 고양이 탐구 생활	40
35	절미언니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인절미예요	36
36	설민석 외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36
37	이분희	한밤중 달빛 식당	34
38	김현수 외	마법천자문 시리즈	33
39	J.K 롤링	해리포터 시리즈	32
40	김용세, 김병섭	도깨비 식당 시리즈	32
41	사이다	고구마구마	31
42	김리리	양순이네 떡집, 달콩이네 떡집	31
43	헬로그	(책임감이 자라는) 강아지 탐구 생활	30
44	홍민정	고양이 해결사 깜냥 시리즈	30
45	마유미 예제프스키	(단계별로 쉽고 빠르게) 귀여운 만화 캐릭터 그리기	29
46	다비드 칼리	완두, 늑대의 선거, 어쩌다 여왕님	29
47	앤디 그리피스	117층 나무집	28
48	남동윤	귀신 선생님과 오싹오싹 귀신학교	27
49	박혜선	야채는 정말 싫어, 새 장난감이 좋아	27
50	이승민	개냥이 수사대 시리즈	27
총계			5,844

1위는 『(추리 천재)영딩이 탐정』 시리즈를 쓴 트롤 작가이다. 『(추리 천재)영딩이 탐정』은 ‘영딩이 탐정’이라는 주인공이 친구들과 함께 수수께끼를 풀고 범인을 추적하며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다. 만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머러스한 요소가 많아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책이다.

2위는 『흔한 남매』를 쓴 흔한남매이다. 흔한남매는 코미디 크리에이터 팀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흔한 남매』 시리즈는 남매가 주인공으로 남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 소소한 일상의 재미를 그리는 만화 형식의 책이다.

3위는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속담』,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관용구』,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맞춤법』 등을 쓴 한낱 작가이다. 이 책들은 속담, 관용구, 맞춤법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으로 각 내용에 맞는 재미있는 그림과 만화가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다.

4위는 『Why?』 시리즈를 쓴 조영선 외 작가들이다. 『Why?』는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및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사진과 만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위는 『비밀요원 레너드』 시리즈를 쓴 박설연 작가이다. 『비밀요원 레너드』는 레너드라는 이름의 비밀요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모험과 유머가 가득한 책으로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만화와 글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책이다. 이상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대출한 작가 1위부터 5위까지의 책을 살펴보니 모두 시리즈물이면서 만화 형식의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6위는 『전천당』을 쓴 히로시마 레이코 작가이다. 『전천당』은 ‘전천당’이라는 다양한 마법과 환상이 가득한 세계로 이 장소에서 겪는 여러 가지 모험이 판타지와 함께 어우러진 소설이다. 글책 중에는 『전천당』을 가장 많이 대출하였다. 1학년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워 보이는 줄글이지만 『전천당』은 애니메이션으로 창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친숙한 내용이다.

그림책 중에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구름빵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쓴 GIMC DPS(정보통신부와 춘천시가 한국의 창작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든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 스튜디오)의 책이다. ‘구름빵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백희나 작가의 인기 있는 『구름빵』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애니메이션 내용을 그림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그 다음 그림책으로는 『지하철을 타고서』, 『집 안 치우기』, 『싸워도 돼요?』, 『거짓말』 등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를 쓴 고대영 작가가 16위이다. 고대영 작가의 ‘지원이와 병관’ 시리즈는 주

인공인 지원이와 병판이의 일상에서의 소소한 사건들을 다루고 그것들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는 그림책이다.

2.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다 대출 도서의 특징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다 대출 도서의 책의 장르, 시리즈 여부, 표현 형태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책의 장르, 시리즈 여부, 표현 형태

		빈도(회)	비율(%)
책의 장르	문학	3,961	67.8
	정보	1,664	28.5
	기타	219	3.7
	소계	5,844	100.0
시리즈 여부	시리즈	5,520	94.5
	비시리즈	324	5.5
	소계	5,844	100.0
표현 형태	만화책	2,997	51.3
	그림책	1,999	34.2
	글책	848	14.5
	소계	5,844	100.0

책의 장르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문학(67.8%) > 정보(28.5%) > 기타(3.7%)’ 순으로 대출을 많이 하였다. 시리즈 책이 94.5%이고, 비시리즈가 5.5%로 학생들은 주로 시리즈 책을 압도적으로 많이 대출하였다. 표현 형태와 관련하여 ‘만화책(51.3%) > 그림책(34.2%) > 글책(14.5%)’ 순으로 대출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도서관 빅데이터 제공 웹사이트 ‘도서관 정

보 나루'²⁾의 '연령별 최근 90일간 대출 순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아(6-7세)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만화책(모두 혼한남매 시리즈)이며, 그 이후의 순위들도 대체로 그림책과 만화책이 혼재되어 있다. 초등(8-13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서 15위까지 만화책(모두 혼한남매 시리즈)이고 공동 16위 글책(전천당), 공동 16위부터 다시 만화책과 그림책, 글책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책의 장르에 따른 시리즈 여부 및 표현 형태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책의 장르별 시리즈 여부 및 표현 형태

		책의 장르			
		문학		정보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시리즈 여부	시리즈	3,665	92.5	1,636	98.3
	비시리즈	296	7.5	28	1.7
	소계	3,961	100.0	1,664	100.0
표현 형태	만화책	1,665	42.0	1,332	80.0
	그림책	1,489	37.6	291	17.5
	글책	807	20.4	41	2.5
	소계	3,961	100.0	1,664	100.0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학과 정보 장르 모두 시리즈 책이 비시리즈 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장르별 표현 형태를 살펴보면 문학 장르의 경우

2) '도서관 정보 나루'에서는 전체, 영유아, 유아, 초등, 청소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어 최근 90일까지의 다대출 도서의 순위를 200위까지 제공하고 있다. 인용한 데이터의 수집 기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의 순위이다. '도서관 정보 나루'에서 제공하는 대출 순위는 본 연구와 달리 단순 도서 대출 순위(작가명 순위 아님)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만화책이 42.0%, 그림책이 37.6%, 글책이 20.4%인 반면 정보 장르의 경우 만화책이 80.0%, 그림책이 17.5%, 글책이 2.5%로 정보 장르의 경우 학생들이 그림책이나 글책의 형식보다 만화책 형식으로 표현된 책을 매우 많이 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학 장르의 표현 형식별 하위 유형과 하위 내용의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 문학 장르의 표현 형식별 하위 유형

		문학 장르			
		그림책		글책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하위 유형	사실적	335	22.5	169	20.7
	낮은 환상성	594	39.9	58	7.2
	높은 환상성	560	37.6	582	72.1
	소계	1,489	100.0	807	100.0

<표 6> 문학 장르의 표현 형식별 내용

		문학 장르			
		그림책		글책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형식별 내용	사실동화	298	20.0	167	20.7
	에세이	37	2.5	0	0.0
	우의동화	594	39.9	58	7.2
	SF판타지	23	1.5	0	0.0
	완전한 판타지	537	36.1	587	72.1
	소계	1,489	100.0	807	100.0

〈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학 장르의 경우 그림책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낮은 환상성(39.9%) > 높은 환상성(37.6%) > 사실적(22.5%)’ 순으로 나타났으나 글책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높은 환상성(72.1%) > 사실적(20.7%) > 낮은 환상성(7.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표 6〉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책의 경우 ‘우의 동화(39.9%) > 완전한 판타지(36.1%) > 사실 동화(20.0%) > 에세이(2.5%) > SF판타지(1.5%)’ 순으로 나타난 반면, 글책의 경우 ‘완전한 판타지(72.1%) > 사실 동화(20.7%) > 우의 동화(7.2%)’ 순이다.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우의 동화 그림책은 GIMC DPS의 ‘구름빵 애니메이션 시리즈’, 미야니시 타츠야의 ‘고 녀석 맛있겠다 시리즈’, 유철화 작가의 『슈퍼 거북』, 『슈퍼 토끼』, 구도 노리코의 ‘우당탕탕 야옹이 시리즈’, 나타야 미와의 ‘까만 크레파스 시리즈’, 김지안 작가의 『봄봄 딸기』, 『여름 낚시』, 『알밤 소풍』, 『코코 스키』, 사이다의 『고구마구마』, 『고구마유』 등과 같은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동물(공룡, 거북이, 토끼, 고양이 등)과 사물(고구마 등)을 의인화하여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귀여운 캐릭터와 화려한 일러스트로 주인공들이 겪는 다양한 사건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으며, 우정, 사랑, 협력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완전한 판타지 글책은 히로시마 레이코의 ‘『전천당』 시리즈’, 맥스 브룩스의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시리즈’, 안비루 야스코의 ‘『마법의 정원 이야기』 시리즈’, 이분희의 『한밤중 달빛 식당』,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김용세·김병섭의 ‘『도깨비 식당』 시리즈’와 같은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판타지나 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인공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보 장르의 그림책과 글책의 하위 유형 및 주제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7〉 정보 장르의 그림책과 글책의 하위 유형

		정보 장르	
		빈도(회)	비율(%)
하위 유형	과정 강조	141	42.5
	특정 주제	191	57.5
	소계	332	100.0

〈표 8〉 정보 장르의 그림책과 글책의 하위 유형

		정보 장르	
		빈도(회)	비율(%)
하위 유형	동물	122	36.7
	종이접기	102	30.7
	게임	39	11.7
	과학	36	10.8
	식물	16	4.8
	역사	9	2.7
	감정	5	1.5
	속담	3	0.9
	소계	332	100.0

〈표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보 장르의 그림책과 글책의 대출 목록을 분석해보면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책(57.5%)을 과정을 강조하는 책(42.5%)보다 더 많이 대출했음을 알 수 있다. 과정을 강조하는 책의 대표적인 책은 ‘종이 접기’책으로 〈표 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종이접기와 관련한 책 대출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책 중에 가장 많이 대출한 주제는 ‘동물 > 종이접기 > 게임(마인크

래프트) > 과학 > 식물 > 역사 > 감정 > 속담'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 영역의 경우 도감(圖鑑)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딩동 도감 시리즈(『딩동~ 개 도감』, 『딩동~ 고양이 도감』, 『딩동~ 새 도감』, 『딩동~ 거미 도감』)가 많았다. '과학 영역'의 경우 '(안녕 자두야) 과학 일기 시리즈' 중에서 '인체, 똥과 방귀, 지구와 달, 우주, 화산과 지진, 날씨와 생활, 인공 지능, 미세먼지, 가상 현실 및 증강 현실'과 관련한 내용의 책이 많았다. '식물' 영역의 경우 『(카카오프렌즈) 과학 일기. 2: 식물』, 『(안녕 자두야) 과학 일기 2: 식물』 책이 많았다. '역사' 영역의 경우 '(카카오프렌즈) 놀이 한국사 시리즈' 중에서 '고대, 조선(상), 조선(하)' 시대와 관련한 책이었고, '감정' 영역은 5권 모두 『(카카오프렌즈) 감정 사전』, '속담' 영역은 3권 모두 『레벨업 카카오프렌즈. 1: 속담』이었다.

3. 성별에 따른 다 대출 도서의 차이

성별에 따라 다 대출 도서 책의 장르와 표현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9>, <표 10>과 같다.

<표 9> 성별에 따른 책의 장르의 차이

		남학생 빈도 (비율)	여학생 빈도 (비율)	소계 빈도 (비율)	χ^2	P
장르	문학	1,796 (59.3)	2,165 (76.9)	3,961 (67.8)	205.433	.000
	정보	1,084 (35.8)	580 (20.6)	1,664 (28.5)		
	기타	147 (4.9)	72 (2.5)	219 (3.7)		
	소계	3,027(100.0)	2,817(100.0)	5,844(100.0)		

<표 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학생은 문학 장르를 59.3%, 정보 장르를 35.8%, 기타 장르를 4.9% 대출한 반면, 여학생은 문학 장르를 76.9%, 정보

장르를 20.6%, 기타 장르를 2.5% 대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대출한 책 장르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10〉 성별에 따른 표현 형태의 차이

		남학생 빈도 (비율)	여학생 빈도 (비율)	소계 빈도 (비율)	χ^2	P
표현 형태	만화책	1,651 (54.5)	1,346 (47.8)	2,997 (51.3)	205.433	.000
	그림책	1,029 (34.0)	970 (34.4)	1,999 (34.2)		
	글책	347 (11.5)	501 (17.8)	848 (14.5)		
	소계	3,027(100.0)	2,817(100.0)	5,844(100.0)		

성별에 따른 표현 형태의 차이는 〈표 10〉에 나타난 것처럼 남학생은 만화책을 54.5%, 그림책을 34.0%, 글책을 11.5% 대출한 반면, 여학생은 만화책을 47.8%, 그림책을 34.4%, 글책을 17.8% 대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대출한 책 표현 형태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성별에 따라 책의 장르와 표현 형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학교별로 차이가 없는지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책의 장르와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와 같이 세 학교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A학교: $\chi^2=18.885$, $p<.05$, B학교: $\chi^2=158.801$, $p<.05$, C학교: $\chi^2=57.620$, $p<.05$), 표현 형태와 관련해서는 두 학교(B학교: $\chi^2=24.841$, $p<.05$, C학교: $\chi^2=91.818$, $p<.05$)는 연구 결과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한 학교(A학교: $\chi^2=1.947$,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편의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추후 더 다양한 학생들 대상으로 표집하여 성별에 따른 책 선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시리즈물이면서 만화 형식의 책을 가장 많이 대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르별로는 문학(67.8%)을 정보(28.5%)보다 더 많이 대출하였으며, 시리즈(94.5%)를 비시리즈(5.5%)보다 더 많이 대출하였다. 표현 형태별로는 만화책(51.3%), 그림책(34.2%), 글책(14.5%) 순으로 대출을 많이 하였다. 장르 유형별 표현 형태를 살펴보면 정보 장르의 경우 만화책이 80.0%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정보 장르의 경우 그림책이나 글책의 형식보다 만화책 형식으로 표현된 책을 매우 많이 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 장르의 그림책은 낮은 환상성의 우의동화를 많이 대출하는 반면, 문학 장르 글책은 높은 환상성의 완전한 판타지를 많이 대출하였다. 정보 장르의 경우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책을 과정을 제시한 책보다 더 많이 대출하였다.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는 동물, 게임, 과학과 관련한 주제를 많이 대출하였고, 과정을 제시한 정보책은 종이접기 책을 가장 많이 대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대출 도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장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문학 장르를 더 많이 대출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정보 장르를 더 대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표현 형식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만화책을 더 많이 대출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글책을 더 많이 대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시리즈물 만화를 압도적으로 많이 대출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친숙한 것을 선호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책 선택에서 친숙한 인물이 있는 책들이 극단적으로 많이 선택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리즈물은 인물에 대한 이

해가 이미 선행된 상태에서 책을 읽게 된다는 점에서 내용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이 접하는 책의 다양성이 줄어들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종류의 인물과 책의 구성을 경험하도록 다양한 도서 선택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유튜버 등 유명 인물로 책의 주인공이 대체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만나고 그 세계관을 이해하는 일과 같은 적극적인 독서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대출되는 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정보책 선택의 비율이 낮다. 그나마 선택된 정보책은 80%가 만화 형식으로 이 시기 학생들에게 정보책이 학습 만화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들의 문학 편독이 1학년 부터 심화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만하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질 높은 정보책에 노출될 수 있도록 주제별 관심사를 중심으로 자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대출 내역을 편의표 집한 것이다. 데이터 편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섭 외했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 대출 경향이 반드시 학생의 선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도서 대출은 학부모, 교사 등 관련 성인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도서 대출 경향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책의 빈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서관은 도서의 질 관리와 독서교육의 관점에서 학생에게 권한 만한 다양한 책을 노출하는 방법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고민해야할 시점 으로 보인다.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고 흥미에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 하지만, 초등 저학년의 경우 다양한 내용과 형식, 장르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이나 학급 문고의 수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교사가

책을 고르고 노출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는 등 주변 환경을 질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도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상 매체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본 논문은 2024.11.1. 투고되었으며, 2024.11.14. 심사가 시작되어 2024.12.12.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2024.12.14.), 연령별인기대출도서(90일), 도서관 정보 나무, 검색일자 2024.

12. 14., 사이트 주소 <https://www.data4library.kr/>

권이은(2015), 「초등학생의 정보 텍스트 독해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혁준(2009), 「판타지동화의 개념, 범주, 유형에 대한 재검토」, 『한국아동문학연구』 16, 5-42.

김혜정(2019), 「미디어 시대의 책맹(비독서) 현상과 독서 교육의 방향」, 『독서연구』 52, 9-49.

남미·권동택(2019), 「초등학생의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을 통해 살펴본 독서 경향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7), 201-221.

노은희·정혜승·민병곤·서수현·서영진·최숙기·서수현·남가영·김정우·옥현진·최소영·박종임·김형정·박혜영·정진석·조재윤·가은아·김종윤·이경남·김광희·김정은·김희동·문해원·박유란·나혜정·서규창·오윤주·장은주·정형근·김잔디·김현숙·박현진·배현진·이귀영·이지나·이지은·한상아(202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혁(2023), 「독서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독서 교육: 독서 환경의 변화와 교육적 대응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68, 9-33.

신현재·이정순(2013), 「초등학생 학년별 동화선호경향 연구: 학교도서관 대출 자료를 중심으로」, 『교원교육』 29(2), 161-185.

오정례(2024),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자기 선택적 독서 연구: 읽기 능력과 읽기 태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준채(2020), 「초등학생의 단어 읽기 발달 양상」, 『독서연구』 57, 61-82.

이경화(202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 문해력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대응」, 『교원교육』 38(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5-26.

이순영·김혜인·박신애(2020), 『책 읽는 청소년 독자 형성 실증연구 및 사례조사: 2020 청소년 책의 해 연구 보고서』, 2020청소년 책의 해 네트워크.

이지영·박소희(2011), 「초등학생의 책 선택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46, 269-299.

정혜승·김정자·정현선·손원숙·김종윤·민병곤(2016), 「초등학생의 학교 밖 문식 활동 빈도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 요인 탐색- 잠재 성장 모형의 적용」, 『국어교육』 153, 171-209.

천경록(2020), 「독서 발달과 독자 발달의 단계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55(3), 313-340.

천경록(2021), 「기초문식성 관련 연구의 실태와 쟁점 탐구」, 『한국초등국어교육』 72, 257-287.

최숙기(2023),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 개발의 중점과 방향」, 『청람어문교육』 92, 303-339.

한명숙(2016), 「우의동화의 문학적 갈래 위상과 교육적 의의」,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9, 295-326.

현은자·김세희(2005), 『그림책의 이해1』, 서울: 사계절.

Bruner, C., Elias, V., Stein, D., & Schaefer, S. (2004), *Early Learning Left Out: An Examination of Public Investments in Education and Development by Child Age*.

Washington, DC: Voices for America's Children and Child & Family Policy Center.

Donovan, C. A., Smolkin, L. B., & Lomax, R. G. (2000), "Beyond the independent-level text: considering the reader? text match in first graders' self-selections during recreational reading", *Reading Psychology* 21(4), 309-333.

Fresch, M. (1995), "Self-selection of early literacy learners", *The Reading Teacher* 49(3), 220-227.

Mohr, K. A. J. (2006), "Children's Choices for Recreational Reading: A Three-Part Investigation of Selection Preferences, Rationales, and Processes",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38(1), 81-104.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도서 대출 목록 분석

— 다 대출 작가의 책을 중심으로

오정례 · 권이은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어떠한 책을 많이 대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만화 형식의 시리즈물을 가장 많이 대출하였으며, 문학 장르의 그림책의 경우 우의 동화를 많이 대출하고, 문학 장르의 글책은 완전한 판타지를 많이 대출했다. 정보 장르의 경우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책을 과정을 제시한 책보다 더 많이 대출하였다. 성별과 관련해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문학 장르와 글책을 더 많이 대출한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정보 장르와 만화책을 더 많이 대출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리즈물 만화를 압도적으로 많이 대출하는 현상, 정보책이 학습 만화로 대체되는 경향, 책 선택에 영상 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친숙하고 익숙한 책만을 고르는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책을 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이나 학급 문고의 수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교사가 책을 고르고 노출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꾀야한다고 제안하였다.

핵심어 초등학교 1학년, 도서 대출, 학교 도서관, 다 대출 도서, 도서 선택

ABSTRACT

Most Borrowed Library Books of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Books of Frequently Borrowed Authors

Oh Jungre · Kwon E-en

This study analyzed the frequency and type of library books borrowed by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out an academic year. Students primarily borrowed comic series, while they favored picture books with fables, and complete fantasy books in the literature genre. In the information genre, they borrowed more books that compiled information on specific topics than books that presented processes. Female students borrowed more literature and written books than male students, whereas male students borrowed more information and comic books than female students. The findings reveal that students tend to choose only familiar and comfortable books, leading to problematic situations such as the overwhelming borrowing of comic series, trend of educational comics replacing information books, and significant influence of visual media on book selection. To address these issues, students must be encouraged through a variety of books in school libraries or classroom collections, and teachers should change their methods of selecting and exposing books.

KEYWORDS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Book Borrowing, School Library, Frequently Borrowed Books, Book Selection